



## 요한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요한복음 1:29 -

## ■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 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이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 ■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던 성찬식과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행하던 금식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을 행하였습니다.

## ■ 사순절의 행사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 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나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이 규정은 완화되기 시작하여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습관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는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의 호화 생활은 자제되었습니다. 대신에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어졌습니다.

이후 1517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는 폐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순절과 관련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 교회의 사상은 여전히 받아들여져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 ■ 금식 기도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의 기간과 엄격성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행위로써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해졌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이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절식節食기도의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 ■ 구제와 선행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구제했습니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을 따라 이를 실천함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 ■ 사순절은 이렇게

사순절은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으로, 자기 부인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자기 부인과 자신이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순절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해 봅시다.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 (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삼가한다)
-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돕는다.

## ■ 나의 십자가 지기

이 항목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서약이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항목에 V표해봅시다.

- 새벽기도에 잘 참여하겠습니다.
- 저녁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 성경말씀을 매일 1장 이상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겠습니다.
- 주 1회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무절제한 소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남을 속이거나 해하지 않겠습니다.
- 일상 속에서 절제하겠습니다. (금주, 금연 등)
- 이웃에게 사랑과 구제, 도움의 손길을 주겠습니다.
- 이웃과 다투며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 2025 사순절 달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b>3/5</b> 1일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본문 : 요 1:1~28	<b>3/6</b> 2일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 : 요 1:29~51	<b>3/7</b> 3일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 : 요 2:1~12	<b>3/8</b> 4일째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본문 : 요 2:13~25	<b>3/9</b> 첫 번째 주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 요 3:1~21
<b>3/10</b> 5일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문 : 요 3:22~36	<b>3/11</b> 6일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본문 : 요 4:1~26	<b>3/12</b> 7일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본문 : 요 4:27~54	<b>3/13</b> 8일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본문 : 요 5:1~29	<b>3/14</b> 9일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본문 : 요 5:30~47	<b>3/15</b> 10일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 요 6:1~21	<b>3/16</b> 두 번째 주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본문 : 요 6:22~51
<b>3/17</b> 11일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문 : 요 6:52~71	<b>3/18</b> 12일째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본문 : 요 7:1~24	<b>3/19</b> 13일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본문 : 요 7:25~53	<b>3/20</b> 14일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본문 : 요 8:1~20	<b>3/21</b> 15일째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 : 요 8:21~30	<b>3/22</b> 16일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본문 : 요 8:31~59	<b>3/23</b> 세 번째 주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본문 : 요 9:1~12
<b>3/24</b> 17일째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본문 : 요 9:13~34	<b>3/25</b> 18일째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본문 : 요 9:35~41	<b>3/26</b> 19일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본문 : 요 10:1~21	<b>3/27</b> 20일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문 : 요 10:22~42	<b>3/28</b> 21일째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본문 : 요 11:1~16	<b>3/29</b> 22일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본문 : 요 11:17~44	<b>3/30</b> 네 번째 주일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본문 : 요 11:45~57
<b>3/31</b> 23일째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본문 : 요 12:1~19	<b>4/1</b> 24일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본문 : 요 12:20~36	<b>4/2</b> 25일째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라  본문 : 요 12:37~50	<b>4/3</b> 26일째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본문 : 요 13:1~20	<b>4/4</b> 27일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문 : 요 13:21~38	<b>4/5</b> 28일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본문 : 요 14:1~15	<b>4/6</b> 다섯 번째 주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본문 : 요 14:16~31
<b>4/7</b> 29일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본문 : 요 15:1~15	<b>4/8</b> 30일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본문 : 요 15:16~27	<b>4/9</b> 31일째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본문 : 요 16:1~19	<b>4/10</b> 32일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본문 : 요 16:20~33	<b>4/11</b> 33일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 : 요 17:1~17	<b>4/12</b> 34일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본문 : 요 17:18~26	<b>4/13</b> 종려주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본문 : 요 18:1~27
<b>4/14</b> 35일째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본문 : 요 18:28~40	<b>4/15</b> 36일째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본문 : 요 19:1~7	<b>4/16</b> 37일째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본문 : 요 19:8~16	<b>4/17</b> 38일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시는 곳에 나가시니  본문 : 요 19:17~26	<b>4/18</b> 39일째 다 이루었다  본문 : 요 19:27~42	<b>4/19</b> 40일째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본문 : 요 20:1~31	<b>4/20</b> 부활주일 내 양을 먹이라  본문 : 요 21:1~25

# 0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03|05 수

성경 요 1:1~28

“태초에(In the beginning)”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이 책이 단순히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세상,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말씀(the Word)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으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실재(實在)를 이 세상에 보이신 성육신(Incarnation)의 은혜를 주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은 추상의 개념을 넘어 눈에 보이는 실재가 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의 기억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02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3|06 목

성경 요 1:29~5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29절)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역, 곧 거룩한 희생 사역에 대해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문설주에 바를 피를 위해 희생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어린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에 두 제자가 반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03

##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03|07 금

성경 요 2:1~12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건, 순종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내 때’는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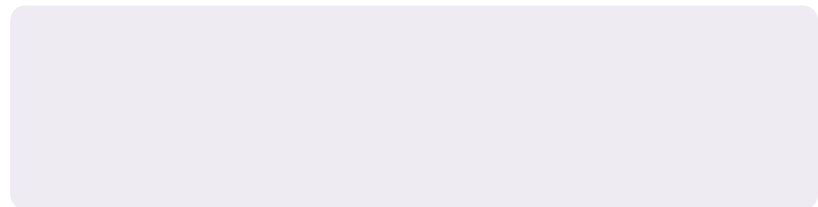
.....

.....

.....

.....

.....



# 04

##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03|08 토

성경 요 2:13~25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훼손한 자들을 내쫓으십니다(16절).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갖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19절)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명이요 정체성이며, 종교,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당시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을 잃은 곳이었을 뿐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완고함 때문에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일으키리라’는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이를 깨닫고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투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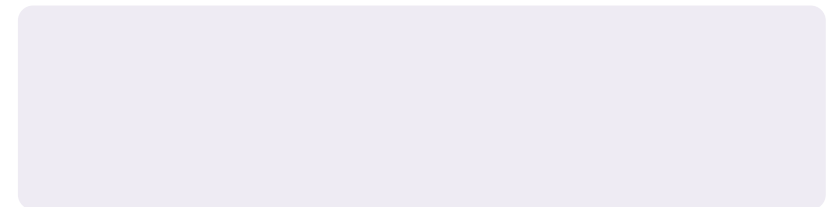
.....

.....

.....

.....

.....



## 주일

##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03|09

성경 요 3:1~21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냄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N. T. Wright)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더없이 좋은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강력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결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

.....

.....

.....

.....

.....

.....

.....

.....

.....



십자가 처형 Crucifixion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34



# 05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03|10 월

성경 요 3:22~36

자신의 명성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생겼을 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며, 자기가 하는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고, 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절)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의 때’에서 ‘성취의 때’로, ‘예비하는 사역’에서 ‘성취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높인 것입니다.

.....

.....

.....

.....

.....

.....

.....

.....

.....

.....

.....

# 06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03|11 화

성경 요 4:1~26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 세상의 창조자와 세상에서 갈등을 느끼는 피조물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지만, 오히려 물이 필요한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거리를 이어주는 것은 생수(living water)입니다. 여인에게 우물은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하나님의 무한성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질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매번 더 큰 욕망을 갈망하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

.....

.....

.....

.....

.....

.....

.....

.....

.....

.....



# 07

##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03|12 수

성경 요 4:27~54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48절).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여야 한다는 인간의 상상력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또는 신앙을 확고히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둔 왕의 신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50절)라는 말씀에 아무런 항의 없이 그저 믿고 갔습니다. 신하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간청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세 번의 반복된 말,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아들이 살아있다는 종들의 말,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그의 믿음은 온 집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

.....

.....

.....

.....

.....

.....

.....

.....

# 08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03|13 목

성경 요 5:1~29

안식일의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을 이방인들로부터 지켜준 정체성이자 영적인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은 ‘사랑과 순종의 하나 됨’이며, 예수님의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순종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

.....

.....

.....

.....

.....

.....

.....

.....

# 09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03|14 금

성경 요 5:30~47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며(32, 37절), 둘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33~35절), 셋째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사역들이며(36절), 넷째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39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체계 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듣고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10

##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03|15 토

성경 요 6:1~21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흑암보다 더 어두웠던 것은 그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이며, 큰 바람보다 요동치는 것은 그들의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20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때때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광풍의 요동침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 가운데 부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

.....

.....

.....

.....

.....

.....

.....

.....

.....

.....

.....

.....

.....

.....

# 주일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03|16

성경 요 6:22~51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동경하기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근거한 마음이었습니니다.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27절)을 얻기 위해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이를 먹는 자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수군거림 대신에 '들음'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Feeding of Five Thousand

헨드릭 드 클레르크(Hendrick de Clerck)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11

# 11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03|17 월

성경 요 6:52~71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려줍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 육체적 종말을 맞이한 이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 오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는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68절)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

.....

.....

.....

.....

.....

.....

.....

.....

.....

# 12

##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03|18 화

성경 요 7:1~24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자 그 가르침을 들은 여러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1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성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비방거리만 찾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기 지향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

.....

.....

.....

.....

.....

.....

.....

.....

.....

.....

# 13

##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03|19 수

성경 요 7:25~53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초막절에는 매일 물의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넘칠 생수의 강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성령'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

.....

.....

.....

.....

.....

.....

.....

.....

.....



# 14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03|20 목

성경 요 8:1~20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을 비방할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을 향해 던지려 했던 돌을 예수님을 향해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내면의 찔림을 받아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와, 때로는 의로움으로 감추려하는 내면의 모든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과 끌고온 자들, 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

.....

.....

.....

.....

.....

.....

.....

.....

.....



# 15

##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03|21 금

성경 요 8:21~30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을 보고 친히 유대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23절).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가 강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의 법칙과 은혜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나와 빛과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보내신 분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

.....

.....

.....

.....

.....

.....

.....

.....

# 16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03|22 토

성경 요 8:31~59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오직 자기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밝게 비추어졌으나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

.....

.....

.....

.....

.....

.....

.....

.....

.....

주  
일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03|23

성경 요 9:1~12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장애를 얻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3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심을 밝히시며(5절), 하나님께서 절망과 어둠을 소망과 빛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이야기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적입니다.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새로운 빛을 선사해 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Christ Healing the Blind Man

에스타케 르 소에르(Eustache Le Sueur)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6-7



# 17

##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03|24 월

성경 요 9:13~34

예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기쁨이 아니라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보게 되었음을 밝혔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직과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거짓된 사건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되었다는 것은 가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요한복음은 답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

.....

.....

.....

.....

.....

.....

.....

.....

# 18

##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03|25 화

성경 요 9:35~41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대조하시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자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 예수님을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됨을 뜻합니다. 즉,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이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

.....

.....

.....

.....

.....

.....

.....

.....

# 19

##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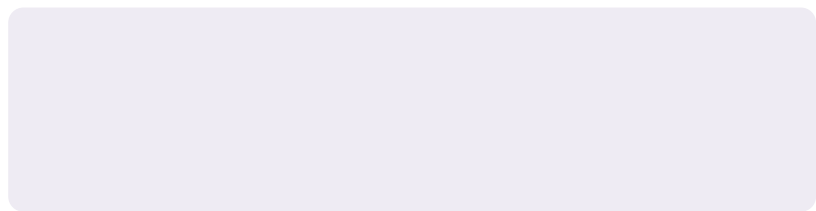
03|26 수

성경 요 10:1~21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오직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 비유로 쉽게 설명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자신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며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품이 좋은 착한 목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  
.....  
.....  
.....  
.....  
.....  
.....  
.....  
.....  
.....



# 20

##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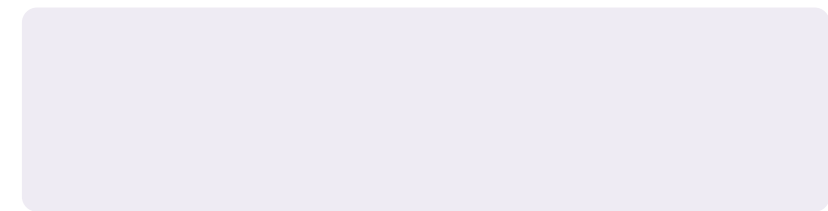
03|27 목

성경 요 10:22~42

예수님께서서는 수전절에 성전에서 열정적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달라” (24절)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메시아임을 선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29~3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경계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고,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와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존재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 배척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  
.....  
.....  
.....  
.....  
.....  
.....  
.....  
.....  
.....



# 21

##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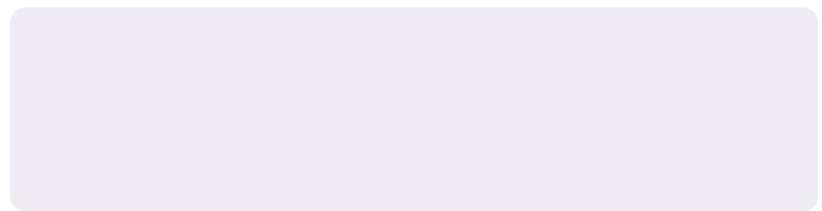
03 | 28 금

성경 요 11:1~1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1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12절)라고 대답하며, 나사로가 단순히 깊이 잠들어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들’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14절)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의 상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 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  
.....  
.....  
.....  
.....  
.....  
.....  
.....  
.....



# 22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03 | 29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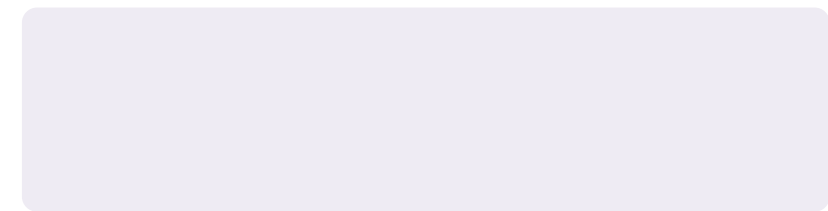
성경 요 11:17~44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라며 애절한 마음과 함께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25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그녀와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주일

##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03|30

성경 요 11:45~57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소집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계속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고, 결국 로마가 개입하여 자신들의 지위와 성전의 권위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려 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계략조차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람들의 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나사로의 부활 The Raising of Lazarus

마이클 파처(Michael Pacher)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43-44

# 23

##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03|31 월

성경 요 12:1~1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에 큰 무리가 나아와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행렬은 생명과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온 예루살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무식하고 한심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백성 가운데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선을 그으며 자신들을 한없이 우월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겸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평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언은 성취되고 있으며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온 인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

.....

.....

.....

.....

# 24

##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04|01 화

성경 요 12:20~36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여쭙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2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성취하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자가 들리는 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경고와 한 가지 호소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36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빛이 있는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25

##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04|02 수

성경 요 12:37~50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어진 다하여도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판이나 관계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강력해 보이는 힘과 심판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을 허물어버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심판을 피할 기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언약,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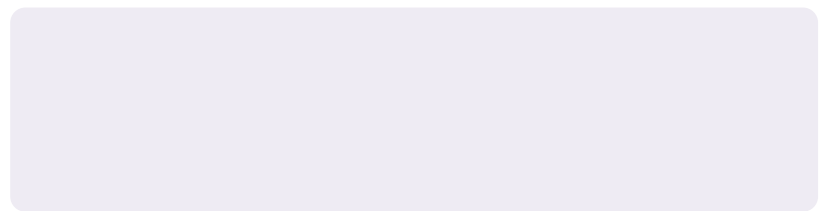
.....

.....

.....

.....

.....



# 26

##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04|03 목

성경 요 13:1~20

예수님은 저녁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홀로 걸으실 길이었지만 훗날 남겨진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보장된 그 자리에 초대된 가롯 유다는 이미 유혹을 받은 상태였으며, 베드로 또한 식사 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누구나 배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친구로 생각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신의나 깨달음, 완전해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 실패의 그 순간에도 변명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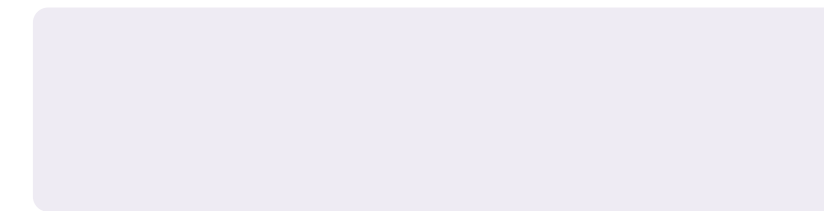
.....

.....

.....

.....

.....





# 27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04|04 금

성경 요 13:21~38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에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가롯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30절). 그는 빛된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어둠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떠나간 후 예수님께서서는 남은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명령이기보다는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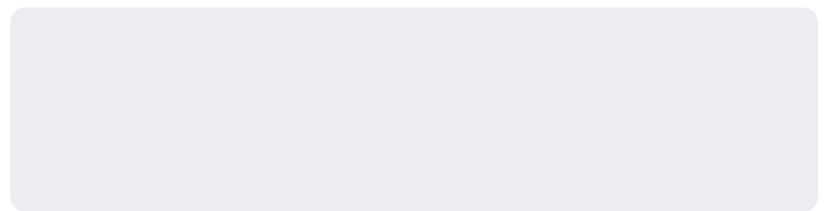
.....

.....

.....

.....

.....



# 28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04|05 토

성경 요 14:1~15

더 이상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때 관계성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연결된 관계, 부활을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새로운 관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연결된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안갯속과 같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갯속을 관통하여 목적지까지 연결된 길을 제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홀로인 줄 알았던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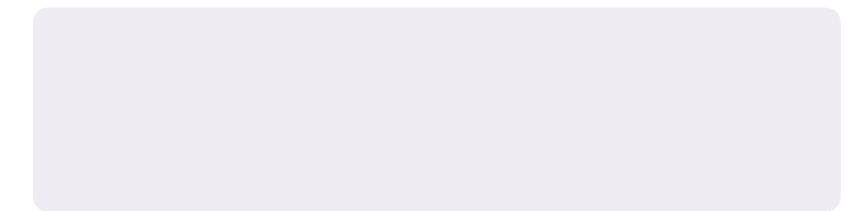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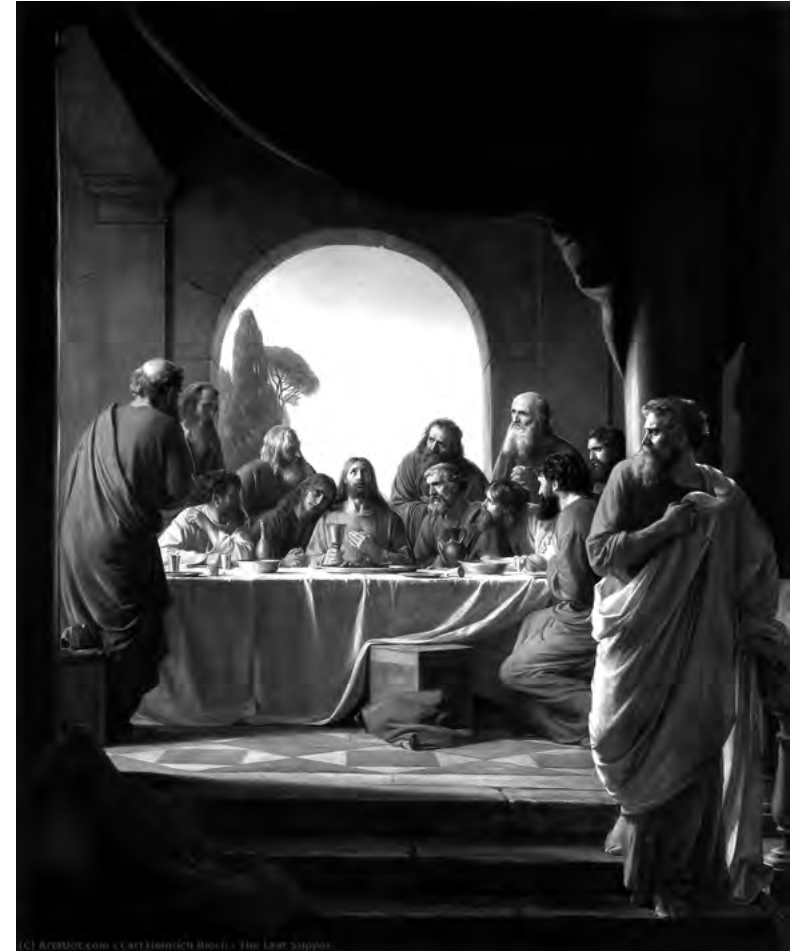
# 주일

## 너희에게로 오리라

04|06

성경 요 14:16~31

훗날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헤어짐은 당장의 슬픔입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한자 의역으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부름, 권면, 간청, 위로, 위안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숨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칼 하인리히 블로흐(Carl Heinrich Bloch)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26~27

# 29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04|07 월

성경 요 15:1~15

유대교 전통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 나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제자들을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참 이스라엘이요,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낮아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

---

---

---

---

---

---

---

# 30

##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04|08 화

성경 요 15:16~27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31

##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04|09 수

성경 요 16:1~19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고난의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행 속에서 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난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

.....

.....

.....

.....

.....

.....

.....

.....

.....



# 32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04|10 목

성경 요 16:20~33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해산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는 근심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해산한 후 산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과 같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힘을 더해주시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

.....

.....

.....

.....

.....

.....

.....

.....



# 33

##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04|11 금

성경 요 17:1~17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세상을 피해 도망가거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

.....

.....

.....

.....

.....

.....

.....

.....

.....

.....

.....

.....

.....

.....

.....

.....

.....

.....

.....

# 34

##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04|12 토

성경 요 17:18~26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을 간구하셨으며, 그들의 하나 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21절)라고 기도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믿음의 연합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

.....

.....

.....

.....

.....

.....

.....

.....

.....

.....

.....

.....

.....

.....

.....

.....

.....

.....

.....

# 주일

##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04/13

성경 요 18:1~27

가롯 유다가 로마 군대와 유대 지도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빼어 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발로는 그 길을 따르기 힘들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다 The Taking of Christ

카라바조(Caravaggio)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요한복음 18:12

# 35

##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04|14 월

성경 요 18:28~40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33절)고 물으며 심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완강한 처벌 요구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는 거룩한 절차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떠남, 군중의 비난과 조롱, 세상의 힘과 폭력,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도 힘없이 끌려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

.....

.....

.....

.....

.....

.....

.....

.....

.....

.....

# 36

##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04|15 화

성경 요 19:1~7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예수님의 처형을 허락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약점과 정치적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인류를 위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중의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의와 도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어둠과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

.....

.....

.....

.....

.....

.....

.....

.....

.....

.....

# 37

## 보라 너희 왕이로다

04|16 수

성경 요 19:8-16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 자칭한다고 비난하며 그를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깁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의 권력과 대치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왕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배신은 그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 예수님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단순히 외적인 권위나 물리적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한 구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

.....

.....

.....

.....

.....

.....

.....



# 38

##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04|17 목

성경 요 19:17-26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죄수는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으며, 이는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으며, 헬라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국제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권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위협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

.....

.....

.....

.....





# 39 다 이루었다

04|18 금

성경 요 19:27~42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30절)라고 선언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기록(마 27:51)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으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선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40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04|19 토

성경 요 20:1~31

무덤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달려갔지만, 발견한 것은 남겨진 세마포와 머리 수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선포하셨고, 도마에게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직접 상처를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만지게 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을 갖게 됩니다.

.....  
.....  
.....  
.....  
.....  
.....  
.....  
.....  
.....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조반을 먹으신 후에 자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된 물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 고백합니다.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물음 그리고 세 번의 고백,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양 떼를 맡기셨듯이, 예수님은 과거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이제 그 길은 죽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길, 즉 겸손으로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

.....

.....

.....

.....

.....



베드로에게 양 떼를 맡기시는 예수님 Christ's Charge to Peter

라파엘로(Raphael)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 사순절을 돌아보며

- 1 내 안의 이기심, 교만, 탐심을 버리고자 기도하였습니까?
- 2 주님이 기꺼이 수치와 멸시를 인내로 받으신 것처럼 매일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 3 나의 생활을 절제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포기하였습니까?
- 4 주변의 절실한 도움과 기도가 필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 5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였습니까?
- 6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

.....

.....

.....

.....

.....

.....

.....

.....

.....

.....

.....

.....

.....

